

제 ① 교시

국 어

1. ㉠에 들어갈 공감적 듣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을 돌리며) 내가 감당해야지.
- ② (결눈질하며) 힘들다니 말도 안 돼.
- ③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 ④ (다른 곳을 바라보며)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2. 다음 말하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표현을 하여 상대방이 이 문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말하기

- ① 오늘은 영하의 날씨래. 창문 좀 닫아 줘.
- ② 맛이 굉장히 독특하네. 음식점을 내도 되겠는데?
- ③ 지난번에 운이 좋아서 시험을 잘 봤어. 이번에는 모르겠다.
- ④ 잠깐 탄생각을 하느라 못 들었어. 한 번만 더 말해 줄래?

3. 다음 문장과 동일한 오류가 드러난 것은?

나의 바람은 내가 잘되었으면 좋겠어.

- ① 그는 아름다운 소녀의 노래를 들었다.
- ② 그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 ③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마음씨가 곱다.
- ④ 우리는 먹고 남은 잔반을 다시 쓰지 않습니다.

4. 밑줄 친 단어 중, 한글 맞춤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한글 맞춤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다만,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① 그녀는 굳이 따지려 들지 않았다.
- ② 그는 노름으로 진 재산을 날렸다.
- ③ 어름이 녹은 비탈에 새싹이 났다.
- ④ 먼 데서 다듬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5.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물, 불, 풀, 뿔’은 [㉠]이/가 바뀜으로써 뜻이 달라진 단어들이다.

- ① 자음 ② 모음
- ③ 소리의 고저 ④ 소리의 길이

6.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방법이다.

㉡, ㉢에 해당하는 표기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표기할 우리말 : 선화 공주님

향찰 표기	善	化	公	主	㉡主	㉢隱
음[소리]	선	화	공	주	주	은
훈[뜻]	착하다	되다	귀인	님	님	숨다

- ① 음차 ② 음차
- ③ 훈차 ④ 훈차

[7~8] 다음 개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 : 기부 문화의 확산

I. 서론 : 기부 참여도가 낮은 사회 현상 제시

II. 본론

1. 기부 참여도가 낮은 원인

가. 기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나. 기부 실천에 대한 경험 부족

다. 기부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2. 해결 방안

㉡

III. 결론 :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부 문화 확산

7.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부의 중요성 홍보
- ② 기부 경험 사례의 공유
- ③ 과소비 현상에 대한 비판
- ④ 기부 방식에 대한 자료 제공

8. 위 주제로 캠페인 문구를 만들 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조건>

대구법과 비유법을 모두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할 것

- ① 나 하나의 기부 실천, 우리 모두의 행복 물결!
- ②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 ③ 기부는 생명의 물, 올해도 가득 채워 주실 거죠?
- ④ 천 원으로 만드는 행복, 기부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 어둠에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는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후렴구를 반복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후각적 이미지로 상황을 역동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④ 처음과 마지막 행에 같은 구절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0.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 '노을'을 보려고 노력하였다.
 - ② 1연: '그네'를 타고 이상향에 정착하였다.
 - ③ 2연: '나비'를 두려운 존재로 여긴다.
 - ④ 3연: '그런데' 이후 분노를 드러낸다.

11. ㉠~㉣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부정적 상황이지만 삶의 희망을 품고 있는 상태
- ① ㉠ ② ㉡ ③ ㉢ ④ ㉣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드디어, 그렇게도 동경하여 마지않던 서울로 올라 오고야 말았다. 청량리를 들어서서 질퍽한 거리를 달리는 승합자동차의 창 너머로, 소년이 우선 본 것은 전차라는 물건이었다. 시골 '가평'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 그야, 전차 한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그는, 지금 곧, 우선 저 전차에

한번 올라타 보았으면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감격을 일일이 아랑곳하지 않고, 동관 앞 자동차부에서 차를 내리자, 그대로 그를 이끌어 종로로 향한다.

소년은 행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가,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있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루 저긴데, 전찬 뭇하러 타니?”

아무리 '바루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하여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A]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 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¹⁾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험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놈들이 앞장을 서서, ㉢ 몽당수염 난 이가 신 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 ㉣ 어린 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

몇 번인가 아버지의 모양을 군중 속에 잃어버릴 뻔하다가 찾아내고, 찾아내고 한 소년은, 종로 네거리 광대한²⁾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침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 박태원, 「천변 풍경」 -

¹⁾마분지: 종이의 하나. 주로 짚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데, 빛이 누렇게 질이 낮다.
²⁾광대(宏大)한: 어마어마하게 큰.

12. '소년'과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소년의 마음을 일일이 헤아리고 있다.
 - ② 아버지와 소년은 종로에서 청량리로 이동하였다.
 - ③ 소년은 서울에서 내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녔다.
 - ④ 소년은 전차를 타지 못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13.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우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여 사건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14. ㉠~㉣ 중,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숨아 세(細) 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고모장지¹⁾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찌귀²⁾ 수돌찌귀
 배묵 걸쇠 똑딱 박고 크나큰 자물쇠로 깊숙이 채웠는데 병풍
 이라 덜컹 접고 족자라 대그르르 말고 네 어느 틈으로 들어
 오느냐.

아마도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 작자 미상 -

¹⁾장지: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
²⁾돌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암쪽은 문설주에, 수쪽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쫓는다.

15.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태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유사한 시어의 반복을 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④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6.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 ② 힘든 세상사에서 느끼는 시름
- ③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
- ④ 목표를 위해 시련을 견디는 굳센 의지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치장을 불작시면,
 편자¹⁾ 없는 헌 망건에 박 쪼가리 관자²⁾ 달고, 물렛줄로 당끈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헌
 술띠를 흥복통에 눌러 띠고, 떨어진 헌 고의에 청올치³⁾로
 대님 매고, 헌 짚신 감발하고⁴⁾ 세살부채 손에 쥐고, 서 홉들이
 오망자루⁵⁾ 꿈무늬에 비스듬 차고, 바람맞은 병인같이 잘 쓰는
 사수같이 어슴비스듬 건너 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 노적⁶⁾, 뒤 노적, 멩에 노적 담불 담불 쌓였으니,
 흥부 마음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하여⁷⁾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흥부 하릴없이 뜰 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뉘고?”

“내가 흥부요.”

“흥부가 뉘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오? 비나이다, 형님 전에 비나
 이다. 세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값으며 일을
 한들 공할쏜가.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오.”

<중략>

탄식하고 돌아오니, 흥부 아내 거동 보소 흥부 오기를 기다리며
 우는 아기 달래 올 제 물레질하며,

“아가 아가 우지 마라. 어제저녁 김 동지 집 용정 방아 찧어
 주고 쌀 한 되 얻어다가 너희들만 끓여 주고 우리 양주⁸⁾ 어제
 저녁 이때까지 그저 있다.”

“잉잉잉.”

“너 아버지 저 건너 아주버니 집에 가서 돈이 되나 쌀이
 되나 양단간에 얻어 오면,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우지 마라.”

“잉잉잉.”

아무리 달래어도 악 치듯 보채는구나. 흥부 아내 하릴없이
 흥부 오기 기다릴 제, 의복 치장 불작시면, 깃만 남은 저고리,
 다 떨어진 누비바지 몽당치마 떨쳐입고, 목만 남은 헌 버선에
 뒤축 없는 짚신 신고, 문밖에 썩 나서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다릴 제, 칠년대한⁹⁾ 가문 날에 비 오기 기다리듯, 장마 진
 데 별 나기 기다리듯, 제갈량 칠성단에 ㉠동남풍 기다리듯,
 ㉡강태공 위수상에 시절을 기다리듯, 만 리 전장에 승전하기
 기다리듯, 어린아이 경풍에 ㉢의원을 기다리듯, 독수공방에
 ㉣낭군 기다리듯, 춘향이 죽게 되어 이 도령 기다리듯, 과년한
 노처녀 시집가기 기다리듯, 삼십 넘은 노도령 장가가기 기다리듯,
 장중에 들어가서 과거 하기 기다리듯, 세끼 굶어 누운 자식
 흥부 오기 기다린다.

- 작자 미상, 『홍부전』 -

¹⁾편자: 망건을 졸라매기 위하여 아래 시울에 붙여 말총으로 좁고 두껍게
 짠 띠.

²⁾관자: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는 작은 단추 모양의 고리.

³⁾청올치: 칩덩굴의 속껍질. 베를 짤 수도 있고 노를 만드는 재료로도 쓴다.

⁴⁾감발하고: 발에 발감개를 하고.

⁵⁾오망자루: 불뚱없이 생긴 자그마한 자루.

⁶⁾노적: 곡식 따위를 한데에 수북이 쌓음. 또는 그런 물건.

⁷⁾무거하여: 성질이 말할 수 없이 흉측하여.

⁸⁾양주: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⁹⁾칠년대한: 칠 년 동안이나 내리 계속되는 큰 가뭄.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웅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 ② 주로 과거형 시제로 서술하고 있다.
- ③ 비슷한 구조의 어구를 나열하고 있다.
- ④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18.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흥부는 초라한 행색으로 놀부를 찾아간다.
- ② 흥부의 아내는 놀부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 ③ 흥부는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④ 놀부는 흥부의 방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19. ㉠~㉣ 중, ‘흥부’를 비유하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해가 뜨는 시각에 잠을 깨고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든다. 머릿속에 진짜 시계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닌데 태곳적부터 그러한 리듬에 따라서 살아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몸에 시간을 ㉠ 측정하는 시계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시계가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경험적으로 알려져 왔으며, 생체 시계의 위치를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난 100여 년간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든 신체 기관이 주기적인 운동을 하니 그 자체로 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체 시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체의 일주기¹⁾ 운동을 ㉡ 관장하는 생체 시계를 '중앙 통제 시계'라고도 한다. 따라서 모든 신체 기관은 이 주인 시계에 맞춰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수적인 시계인 셈이다. 이 주인 시계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체 기관의 각 영역을 하나씩 망가뜨려 보면서, 그래도 일주기 운동이 살아남아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찾은 곳이 바로 뇌에 있는 시교차상 핵이다. 빛이 눈으로 들어온 뒤 가게 되는 뇌의 좌우 신경이 교차하는 곳, 즉 시교차 위에 있어 시교차상 핵이라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생체 시계가 빛의 영향을 받다 보니 오랫동안 가장 그럴듯한 생체 시계 후보로 ㉢ 간주됐다. 시교차상 핵은 2만여 개의 신경 세포로 ㉣ 구성돼 있다. 살아 있는 쥐의 시교차상 핵에 전극을 꽂아 신경 세포들의 전기 신호를 측정해 보면, 24시간을 주기로 사인파²⁾에 아주 가까운 파형을 그린다. 그리고 바로 이곳을 망가뜨리면 체내 대부분의 기관이 보이던 24시간 주기적 양상이 사라진다. 시교차상 핵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중앙 통제 시계인 것이다.

- 정재승, 「우리 몸의 생체 시계」 -

¹⁾일주기(日週期): 하루를 주기로 하여 나타나는 생물 활동이나 이동의 변화 현상.

²⁾사인파(sine波): 파형을 삼각함수의 사인 곡선으로 표시하는 파동.

20. 윗글의 읽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읽는다.
- ② 사실과 의견을 구분 없이 읽는다.
- ③ 핵심 개념과 정보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④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읽는다.

21. '시교차상 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뇌에 존재하는 중앙 통제 시계이다.
- ② 작동하지 않아도 일주기 운동이 일어난다.
- ③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주인 시계에 맞춰 움직이는 부수적인 시계이다.

2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을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재는 ② ㉡: 막는
- ③ ㉢: 여겨졌다 ④ ㉣: 이루어져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길을 걷다가 중학생 또래의 청초하고 해맑은 아이들 입에서 거친 욕설이 줄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는 어른이 많다. 더구나 요즘 청소년 사이에 만연한 욕은 그것이 욕설이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화된 언어폭력이라고 할 정도이다. 욕을 안 쓰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욕설이 일상화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반성할 문제이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아니지만 사회적·문화적 차별 의식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 있다. 몇몇 직업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 이유는 그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옛날의 '식모'는 요즘 '가정부', 나아가 '가사 도우미'로 불린다. '우체부'는 '집배원', '청소부'는 '환경미화원', '간호원'은 '간호사'로 바뀌었다. ㉠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좀 더 격(格)을 높여 직업적 자부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변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차별적 표현에는 '미혼모', '여의사', '출가의인', '사내 녀석이 그것도 못 해?'와 같은 ㉡ 성차별적 표현이 있고, '절름발이 행정', '장님 코끼리 더듬기', '꿀 먹은 병어리' 같은 ㉢ 신체 차별적 표현도 있다. '유색 인종', '혼혈아' 같은 표현들은 ㉣ 인종에 따른 차별 표현으로, 한때 '살색'이라고 부르던 색을 '살구색'으로 바꾼 것은 이러한 표현에 담긴 차별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중략>

말과 글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을 즐겁게도 기분 상하게도 한다. 따라서 말을 요령 있게 사용하면 자신의 의도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언어문화도 바꿀 수 있다. 이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역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다. 『논어』에 나오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라는 구절은 입을 열고 펜을 들기 전에 한번쯤 되뇌어 볼 만한 명구이다. 언어폭력은 언어폭력을 부르며, 결국은 심리적인 상처나 물리적인 충돌로 번진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내가 종이에 적는 글 한 구절이 나 자신의 품격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의식하며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 노재현, 「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여 이를 반박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기의 방식으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설문 조사의 결과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④ 구체적 현실을 제시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4.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를 배려하는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 ② 어휘력의 향상을 위해서 독서 습관을 길러야 한다.
- ③ 한글 맞춤법에 맞는 언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 ④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5.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기>

- 그녀는 여류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다.
- 그는 30세에 접어들어 비로소 처녀작을 발표했다.

- ① ㉠ ② ㉡ ③ ㉢ ④ ㉣